

(인도자용)

돌판에 새긴 말씀 “십계명” 3

“절도에서 관대함으로”

“도둑질 하지 말라”



마음열기

도둑질일까? 아닐까?

- 어수룩하지만 마음만은 순수한 칠석이와 팔석이는 부잣집 똥을 가져오면 부자가 된다는 말에 최 부자네 똥을 몰래 가져다 아랫목에 고이 모셔 두었어요. 칠석이와 팔석이의 행동은 도둑질일까요 아닐까요?

- 콜롬비아 출신으로 멕시코 국적을 취득한 타이로 두케(36)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면 그냥 가져갈 수 있는 크림을 몇 개 집어갔다가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체포되었다. 두케의 행동은 도둑질일까요 아닐까요?

- 20년째 교회학교 교사로 열심을 내며 믿음이 매우 좋은 A씨, A씨의 모든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을까였다. 집예를 가도 회사를 가도 온통 교회학교 생각뿐이었다. 회사를 가면 틈틈이 회사전화로 아이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회사 복사기와 칼라 프린트로 온갖 자료와 공과를 뽑는다. A씨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에 매우 큰 자부심이 있고, 아이들은 A교사를 너무 너무 좋아하고 교회에서는 칭찬일색이다. A씨의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 국회의원 B씨, 그는 말 빨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달변인 이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수많은 공약을 내세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그가 지친 공약은 거의 없으며 새로운 말 빨로 요리 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해다니고 있다. 국회의원 B씨의 행동은 도둑질일까요 아닐까요?

☞ 다섯 사례 중 가장 도둑질이 맞다고 생각되는 것은? 반대로 가장 애매하거나 도둑질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은?

☞ 위 내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아래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 이 행동은 도둑질인가요?
-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 도덕적으로는 어떤가요?
- 당신은 어떻게 느꼈나요?
-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 나눔

1.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 에베소서 4:28

28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낼까요? 나도 모르는 새에 하는 도둑질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양심에 걸렸지만 그 양심을 무시한 채 행동한 적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 에베소서 4:28에서 바울은 도둑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나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	남의 것을 갈취하는 것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	남을 돕지 않는 것

📖 마르틴 루터는 “삶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세상을 본다면, 그것은 단지 엄청난 도적들로 가득 차 있는 거대하고 넓은 시장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도둑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정	
직장(사업)	

사회	
관계	
교회	
연약한 자들	

2. 사도 바울은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갈취하는 것만이 도둑질의 전부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성 바실리우스는 “누군가 남의 옷을 훔치면 그는 도둑이라 불린다. 헐벗은 자를 입힐 수 있음에도 그리하지 않는 자에게도 같은 이름을 붙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찬장의 빵은 배고픈 자의 것이요. 네가 입지 않고 옷장에 걸어 놓은 옷은 헐벗은 자의 것이다.”라고 바울의 의견에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옷장을 열고 당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게 다 누구의 옷이지?”

오늘 당장 당신의 신발장을 열고 당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게 다 누구의 신발이지?”

나에게 필요 없지만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 적용과 결단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 한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세상을 본다면, 그것은 단지 엄청난 도적들로 가득 차 있는 거대하고 넓은 시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때론 일부러, 모르는 척 하며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성경의 절대적 기준을 지키는 대신에 자신을 도둑이라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허용 가능 절도 수준을 정해 놓습니다.

이건 필요 없어서 남은 거야, 다음에 값으면 되지, 어차피 회사한테는 없어도 아쉽지 않은 물건인 걸, 남들도 모두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잖아, 이정도는 누구누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합리화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이라도 당신이 중단해야 할 도둑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신이 손을 내밀어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